

## 第64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 第3號

##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10月29日(水) 午後1時30分

場 所 第2小會議室

## 議事日程

1. '97年度城北區議會地域開發委員會行政事務監查計劃案
2. 現場踏查計劃案

## 審査된案件

1. '97年度城北區議會地域開發委員會行政事務監查計劃案(文京周議員外1人 發議) ..... 1面
2. 現場踏查計劃案(地域開發委員長 提案) ..... 1面

(13時55分 開議)

1. '97年度城北區議會地域開發委員會行政事務  
監查計劃案(文京周議員外1人 發議)

○委員長 鄭昌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성북구의 회 임시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의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태백시의회 비교시찰을 위해 1박 2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정기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현장답사계획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주 간사와 1인의 찬성으로 발 의되었습니다. 문경주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幹事 文京周 문경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성북구의회 지역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 조 내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의회지역개발위원회의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 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 행정업 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효율 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심도있는 1998년도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 요 골자는 먼저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 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도시관리국, 건설국,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 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 위원님 들의 뜻을 모아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 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委員長 鄭昌萬 문경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대상 기관중 동 사무소 선정문제나 감사일정 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나 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동사무소 현재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않습니까?

○委員長 鄭昌萬 중복되지 않습니다. 협의해 서 했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羅光洙委員 이 안은 조금전에 토론해서 거쳤으니까 이대로 하죠.

○委員長 鄭昌萬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9分 停會)

(14時11分 續開)

○委員長 鄭昌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의 아리랑고개 미관지구지역 그리고 인촌로를 현장답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와 시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2. 現場踏査計劃(案)(地域開發委員長 提案)

○委員長 鄭昌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현재 구청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으로써 현장을 시찰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 정기회의에 대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저번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장님 현황설명 좀 해주실까요, 간

단하게.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저희 구에서 그동안 인촌로와 아리랑길에 대해서 미관지구 지정했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리랑길과 인촌로는 다같이 기존 폭15m에서 25m로 확장하고자 해서 현재 일부 보상 및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리랑길은 연장이 1,510m이고 보문동 인촌로는 1,500m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리랑길과 인촌로를 확장하면서 아리랑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 아리랑이 영화촬영된 장소이므로 그 뜻을 기리고 또 춘사 나운규 선생님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아리랑길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통과기능으로써의 도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담기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양쪽에 5종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입안을 했었고 인촌로는 지하철 6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도로확장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대와 개운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가 담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미관지구 지정을 입안했었습니다. 금년 7월5일날 도시계획안을 입안해 가지고 공고를 했고 9월달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통과기능으로써의 교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측으로 5m씩을 확장하는데 확장하고 남은 대지가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미관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도로경계에서 3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건축할 땅이, 대지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이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집단항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도 했고 또 이 지역을 관리하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

민들하고 대화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구 발전이나 그쪽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미관지구 지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토지가 5m씩 도로확장에 이미 보상이 되어서 팔려나가고 남은 땅들이 폭이 좁은데 여기에 다시 미관지구 지정을 해서 3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이 도저히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애절한 뜻도 저희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 행정의 후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감당하기는 너무 무리한 욕심이 아니냐, 또 너무 장래계획도 좋지마는 현실적인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최종 의견을 모으기는 미관지구 지정 입안 자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간단히 갖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구청측의 의견을 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김영기위원장.

○金鈴基委員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관지구 입안해제라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실제 우리가 가는 현장답사는 주민들의 민원, 과연 이 좁은 땅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5m를 잘라주고 후 3m를 내놓고 건물을 짓게 되니까 적은 땅에 건물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죽이는 사람 아주 죽이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민원회의에서 현장답사를 요했던 건데 실은 거기에는 우리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입니다. 입안지 해제라는 것, 이거 한가지인데 이미 입안지 해제라는 말을 보고를 받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일정은 잡혀있지마는 현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가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실지 얻을 것은 이미 얻

은 상태에서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애기에요.

○委員長 鄭昌萬 그런데 의사일정도 잡혀있지만 말이죠, 지금 현장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현장도 목격하고 또 국장님도 설명을 해제했다든지 그런 질문, 답을 끝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편하고 홍보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속에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金鈴基委員 그러면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委員長 鄭昌萬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현장답사 아닙니까?

○金鈴基委員 그러니까 주민에게 이 사항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방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설명 개요를 들고 주민들에게 확실히 이 문제를 알리자,

○委員長 鄭昌萬 그렇죠. 그렇게 또 알리는 방법도 있죠.

○金鈴基委員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     |     |     |
|-----|-----|-----|
| 鄭昌萬 | 文京周 | 金東殷 |
| 金順權 | 金鈴基 | 羅光洙 |
| 徐榮振 | 申在福 | 柳興先 |
| 李承魯 | 李鍊垈 | 許東翼 |

○缺席委員 1人

金甲濟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林洛吉